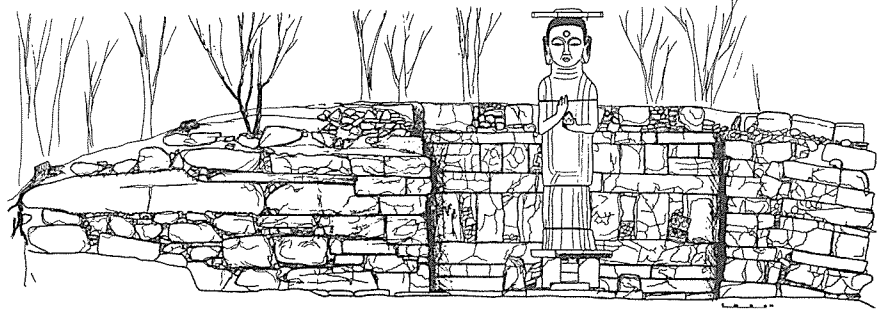


申 榮 勳
文化財委員會 專門委員



石窟主室正面實測圖

鷄立嶺의 彌勒大院 (上)

1

수안보에 온천하러 갔던 분들은 한가한 시간을 틈타 새재(鳥嶺)의 관문성(關門城)이나 원풍리(院豊里) 마애불 또는 世界寺라고 알려진 彌勒堂里石窟을 다녀 松界의 德周山城과 德周寺 그리고 磨崖佛을 다니며 볼 수 있다. 또 獅子頻迅寺의 獅子塔을 찾아 볼 수도 있다. 이 중에서 彌勒堂里石窟은 중요한 遺構이다. 石窟의 本尊佛像은 宝物 第96號로, 窟前의 五層石塔은 95號로 지정되어 있고 또 거대한 거북돌과 幢竿支柱·石燈 등이 남아 있으며 법당자리도 발굴해서 노출정리하여 두어 구경거리가 많다.

구경거리는 석축 동쪽 언덕 위에 있는 작은 石塔의 존재로 확대된다. 이 부근에도 법당인듯한 건물자리가 있고

산기슭으로 더 올라가면 무수한 바위 돌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중엔 加工하다 폐기한 것, 깎다가 완성되지 않은 것 등이 있어서 이런 방면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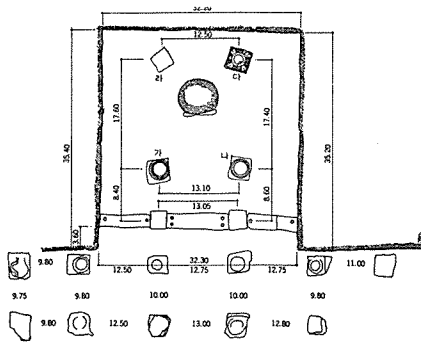
흩어진 돌이 있는 산기슭에서 올라다 보면 釜(婦)德山이 솟았다. 鳥嶺山主峰인 主屹山의 한 支脈인데 해발 920m의 巨峰이다. 이는 石窟의 背山이 되었는데, 그래서 形局은 남쪽에서 北向하여 형성되었다. 石窟도 이 형국에 쫓아 北向하게 되었다. 釜德山 동편으로 하늘재(寒喧嶺)가 연맥되어 있고 서쪽으로는 어류동(御留洞)을 지나 계속되는 지름재(鷄立嶺)가 있어 화청룡 우백호를 이룬듯이 형국되어 있다. 북쪽 한쪽이 특 터지면서 鷄立川이 흘러 나간다. 중첩되는 산맥이 겹쳐진 층으로 물이 흘러 내리며 湫도 되고 沼도 되면서 명승을 이루었다. 이 개울물은 寒水에서 南漢江에 합류하여 彈琴臺로 흘러 내린다.

부봉에서 내려다 보면 넓은 분지가 열렸다. 분지의 중앙쯤으로 鷄立川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개울가 움푹 꺼진 자리에 石窟이 자리잡고 있다. 종고 반듯한 터전 다 두고 하필이면 그런 자리에 석굴을 경영하였는지 알 수 없다.

의문을 제기하면 이런 占定의 까닭에도 의문이 된다.

무심히 보면 이 정도가 눈에 뜨일 뿐이다. 보통은 이만큼 보고 오기도 드물다. 그냥 석굴 근방을 다녀 오는 것이 관광객들의 行步이다. 그러나 좀 더 관심을 두고 살펴보면 매우 의미심장하고 흥미도 진진한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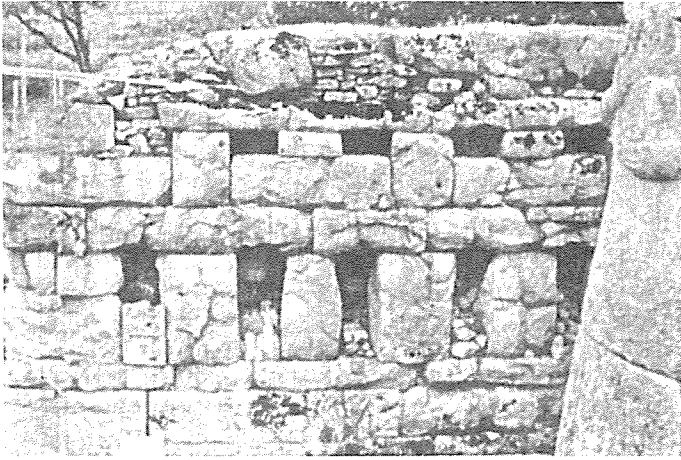
우리 일행은 1978년 겨울철에 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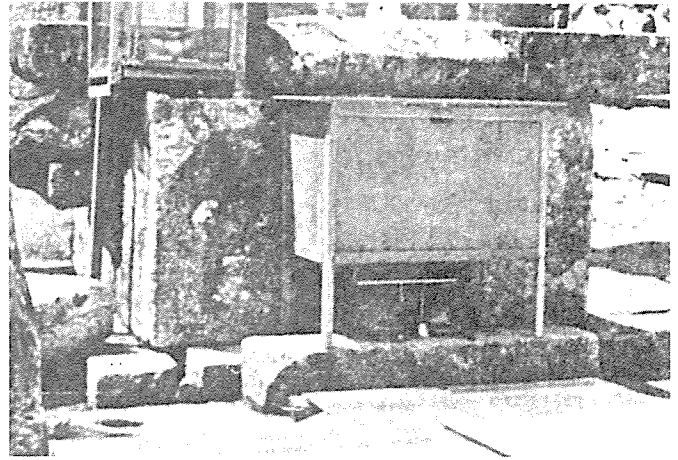
主室·前室바닥平面圖

現存하는 石窟의 前室과 主室





主室內 石壁(石壁의 現狀)



香卓形의 巨大한 石床

석굴에 가서 이듬해 정월까지 머물면서 석굴을 精密實測하면서 이 석굴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인 성격과 가치를 찾아내는 일에 종사하였다. 그 성과로 「中原郡 彌勒里 石窟實測 調查報告書」(中原郡에서 1979. 2月刊. 214면 윌셀印刷)를 간행하게 되어 석굴을 파악하는 기초작업을 다졌다. 1977년도에 淸州大學팀에 의하여 窟前 建物址의 발굴도 시행된 바 있어서 이들 조사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2

수안보에서 자고 일어난 우리는 溫泉水로 齋戒한 깨끗한 몸으로 옛 분들이 다니시던 길을 걷기로 하였다. 一步一禮의 지경까지는 아니더라도 탐색의 길에 나선 바에는 몸과 마음을 정리하고 순수하게 살피고 볼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는 심경이었다. 黃義秀(韓國文化財研究院)·丁世勳(泰昌建築設計室長)·姜基完(文公部 免許補修技術者)諸氏가 동반이 되었다.

수안보를 출발하여 大安堡로 가는 산길로 접어든다. 서낭당이 있는 山路를 지나니 世界寺라고 表石을 세운 곳에 이른다. 거기에서 길은 동편으로 꺾여 있다. 숲이 있고 큼직한 건물로 지은 서낭당이 있는 곳을 지나면 탄탄대로가 계속된다. 최근에는 신작로를 아스팔트로 포장까지 하였다. 大寺里에 이른다. 지금은 취락이 발전하여 집이 그득하여서, 규모가 컸다는 절터는 찾을 수 없었다. 그냥 말로만 듣고 지나가는 절터가 되고 말았다.

대사리를 지나 개울을 건너가면 石門里가 된다. 城砦의 石門이 서있던 고장이어서 그런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지금은 石門이 보이지 않는다. 다

만 길에서 개울을 건너다 보면 산기슭에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병참터〉가 있다. 돌로 돌각담 쌓은 두터운 울타리가 장방형을 이룬 터전. 약 700평에 가까운데 건물자리였던 주춧돌과 기왓장들이 흩어져 있다. 아직 발굴조사를 하지 않아 유구의 정확한 시대나 성격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城底의 平倉으로 이른바 병참기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병참터를 지나면 길은 산골짜기로 바짝 닳아서 오르막이 된다. 지금의 신작로는 옛길이 아니다. 관애와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등성을 타고 내려와 길을 막는다. 한편엔 계곡의 물이 흐르고 있다. 고개는 점점 더 험해지면서 치닫는다. 내려다 보면 어느새 石門里가 저만큼 발아래 멀리로 내려다 보인다.

小白山의 거센 山脈의 한줄기가 連峰이 되어 오다가 뚝 떨어지면서 산골짜기 끝의 고개가 되었다. 여기를 지름재라 부른다. 三國史記에 鷄立嶺 麻木嶺이라 기록한 곳이 바로 여기이다.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는 서기 156년에 신라의 阿達羅尼師今이 鷄立嶺을 개척하였다는 史實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丹陽의 竹嶺이 158년에 개척되기 이태 전의 일로 주목되어 오고 있다. 156년과 158년에 小白山脈을 넘어 中原에 통하는 南北의 大路를 신라인들이 열었다는 기록이기 때문이다. 竹嶺길은 지금도 國道가 되어 산맥을 넘는 통로로 되어 있으며 지름재(鷄立은 麻骨·麻木으로 계름·지름을 말하고 계름은 새라고 부르기도 한다. 鷄立은 〈새〉의 의미도 되며 이는 훗날 〈새재〉라는 길의 이름이 되기도 한다. 새

재를 鳥嶺이라 표기하기도 한다. 결국 새의 鷄는 鳥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현재 폐도되었으나 이웃에 새재가 개척되어 남북통로는 여전히 열려 있다. 현대에 와서는 伊火嶺에 신작로가 생기고 국도로 포장되었다.

지름재 고개를 넘으면 올라올 때만 큼 가파르지 않은 아늑한 골짜기로 길이나 있다. 길을 따라 감돌아 들면서 내려가면 개울을 하나 건너게 되고 그 개울 지나면 성채 하나를 지나게 되며, 성채를 지나면 앞이 탁 트이면서 石窟이 있는 분지가 한 눈에 들어온다. 釜峰과 대치한듯 서있는 거대한 벼랑이 치마폭처럼 연속되는, 그래서 布德山이란 이름을 얻었다는 벼랑이 장엄하게 닳아선다.

3

수안보에서 출발한지 두시간만에 석굴에 도착하였다. 날썩게 걷는 사람들이 걷는 일만으로 위주한다면 한시간 이내에 당도할 수 있을법 하다.

지름재 넘어 석굴을 바라다 보면 서길다 건너다 보면 석굴 동편 저쪽으로 안장같이 잘썩해 보이는 고개가 또 보인다. 하늘재라고도 하고 寒暄嶺이라고 하며 大院嶺이라고도 부른다. 조선시대의 史書나 輿地書 등에서 읽을 수 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엔 그 명칭이 보이지 않는다.

석굴에서 하늘재로 가면 조선조시대 사기막을 차렸던 터전이 있다. 또 성채가 쌓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자리도 있다. 여기가 고개의 마루턱이다. 올라가서 되돌아 보면 부봉과 분지와 지름재가 한 눈에 보인다.

이 하늘재를 넘으면 경상북도 땅이 된다. 재 이쪽은 충청북도이다. 삼국

사기 등으로 보면 지름재가 경계로 되어야겠는데 실제로는 하늘재가 영남과 영북을 경계지어 주는 마루터기가 되어 있다.

하늘재 고개길을 내려가면 경상북도 문경군의 관음리가 된다. 큰 절터가 있고 지금도 觀音立像이 있으며 탑이 있던 자기가 완전하고 건물터전도 여러 곳에 남아 있다. 여기에서 개울따라 내려가다 葛坪에 이르면 낙동강 상류에 닿는다. 그 길을 피하고 노루목 쪽으로 평탄한 길을 따라 가면 저 유명한 四佛山에 닿는다. 신라 때 眞平王이 다녀간바 있는 彌勒庵과 마애불이 있는 妙寂庵이 그 일대에 있고 大乘寺가 있다.

이 지역은 후삼국, 고려와 후백제가 늘 싸우던 곳이다. 近嶺城을 중심으로 북진하려는 후백제의 세력을 고려군이 막고 남진하려는 고려의 힘을 후백제가 경계하는 싸움이 간헐적으로 계속 되던 고장이다. 여기에서 남쪽길로 접어들면 龍宮의 낙동강 지류를 타게 되고 동쪽길로 들어서면 醴泉땅으로 해서 安東으로 가게 된다. 龍門寺가 그 길목의 중요지점이었다.

石窟이 있는 지역은 낙동강과 한강의 分岐點에 있는 셈이고 낙동강과 한강을 타고 운반되는 文物의 流通을 중계하거나 소통시켜주는 소임의 고장이기도 하다.

4

만일에 석굴을 차지한 세력이 文物의 소통을 거절하거나 방해하면 小白山脈을 넘는 큰길 하나가 막히게 된다. 보통의 일이 이니다. 利益의 당사자들이라면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여기를 세력권 아래 두어 장악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신라는 그래서 서기 156년에 지름재를 개척하였던 것이다. 신라쪽에서 보면 地形上 하늘재보다는 지름재의 확보가 중요시 되었다. 석굴이 있는 분지의 포용이 요긴하였기 때문이다. 한강으로 가는 길은 지름천을 따라 송계로 해서 남한강에 흘러드는 일이 훨씬 빠르고 손쉽다. 하늘재를 넘어온 문물을 송계로 내려 보낼 때 지름재의 鎭將은 등덜미를 지켜주는 중요한 鎭守가 되었다.

이 요지의 保衛를 위하여 신라는 당연히 前哨基地化하였을 것이고 국방

시설을 집중하여 要塞化하였을 것이다. 그리곤 山城에 절을 짓듯이 여기에도 절을 지었으리라 생각된다.

삼국이 통일된 이후 이 일대는 중계지로서의 기능은 활발하여 졌겠지만 군사상의 중요성은 반감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의 기간이었다. 신라통일기하대 신라왕실에 반기를 든 무리들이 거점을 확보하면서 부터 이 일대는 다시 전운이 감도는 지역으로 바뀐다. 신라왕실을 반대하는 무리들 중에 梁吉과 궁으로 대표되는 일당과 견훤이 대표하는 後百濟의 세력이 강성하였다. 梁吉은 竹嶺의 利點을 先點한 太白山脈沿岸의 세력이고 견훤은 鷄立嶺을 거점으로 하여 洛東江沿岸의 평야를 기반으로 한 세력이었다. 梁吉은 綠林黨을 조직하여 山谷間에서 세력을 양성하였는데 비하여 견훤은 그의 아버지 阿慈介의 고향인 尚州땅을 발판 삼아 들로 세력을 펼쳐 나갔다. 견훤이 삼시간에 百濟의 故土를 장악하게 된 내면에는 지름재의 확보가 원동력이었다.

궁으로 부터 국권을 넘겨받은 王建이 嶺南으로 진출하려 하였을 때 제일 먼저 부딪친 세력이 견훤 지지의 지름재 일대의 군단이었다. 이들을 포섭하는 작업이 은밀히 진행된다. 王建의 할아버지 作帝建이 일찍부터 속리산 문수봉의 남쪽, 火嶺의 東南 골짜기 견훤궁과 가까운 자리에 長角寺를 짓고 막대한 세력을 구축하면서 견훤의 지지세력들을 포섭하여 자기 세력권 아래 둔다. 이 일로 견훤의 아버지 阿慈介도 王建에게 귀부하였고 문경의 土豪 興達도 항복한다. 견훤의 고향, 제립령의 전지세력들이 일거에 몰락하고 고려의 편이 되었다. 王建의 小白山脈 진출은 그래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지름재 일대를 확보한 王建은 南下의 基地로 또는 鎭守의 要地로 분지에 군사시설을 하였다. 新興國家의 진취의 기상을 떨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寺院을 創建하여 要塞의 中樞로 삼고 정신적인 지도도 겸하도록 하였다. 당시의 스님들은 백성들에게서 그만한 예우를 받고 있었고 군인들의 정신력 수양에 이바지하고 있었으므로 寺院의 존재는 꼭 필요하였다. 또 무수한 寺院僧徒들은 일조유사시 僧兵으로 降

魔軍이 되었던 것이므로 王建은 佛力을 빌어 적을 진압하겠다는 信仰과 제도상 그렇게 함이 유리하다는 계산 아래에서 여기에 石窟寺院을 거창하게 조성하게 하였고 花郎徒 이래 젊은 군인들의 동경이었던 彌勒을 主尊으로 삼게 하였다. 이 寺院을 고려사람들은 彌勒大院이라 불렀다.

石窟寺院은 삼국시대로 부터 조성되어 왔다. 경주의 骨窟庵, 三花嶺의 石窟, 吐含山의 石窟 등 무수한 석굴들이 경영되어 왔다. 그중 토함산 석굴이 우리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 석굴은 東海의 海中王陵과 깊은 관계가 있다. 佛力을 빌어 진압하려는 文武王의 護國志望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도에서 景德王은 석굴암을 조영한다. 국가안위의 수호로서 석굴이 경영되었던 것이다. 彌勒大院에도 국가안위를 지키려는 기원이 있었고 신념이 있었다. 蒙古亂 때 蒙古軍이 德周山城에서 패한 뒤에 이리로 南下하지 못하고 우회하여 경주에까지 가서 皇龍寺九層塔을 불태웠던 일이 기억된다. 그 蒙古軍이 德周山城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하여 반대편, 남쪽으로부터 北上하면서 德周山城의 근원지인 미륵대원을 공격한다. 기습에 당황한 고려군과 승병들이 金堂峽에서 대판의 싸움을 벌이지만 준비없이 당한 터라 이들은 大敗하였고 彌勒大院은 이들의 방화로 짱그리 불타버리고 말았다.

그후로 彌勒大院은 회복되지 못하고 말았는데 워낙 거창하고 工役이 浩大하므로 감히 重建을 이행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피해를 입은 채로 石窟은 남겨지게 되었고 彌勒大院은 자취만을 남겼다. 그래도 佛徒들은 本尊에게의 香火를 계속하기 위하여 露天에 나 앉게 된 불상에게 모자를 씌워 드려 雨露가 얼굴에 닿지 못하게 하였고 불탄 몸매를 다시 정리하여 佛像으로서의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추게 가다듬었다.

이번 실측조사에서는 이 본존의 모습과 石窟前室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랬더니 예상하였던대로 구성에서 치밀하게 계산되었음이 밝혀져 놀라운 數理應用의 실례를 하나 더 알아낼 수 있게 되었다. 석굴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